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6/1~6/5]

“지수는 흔들려도 실적주 중심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

- 금주는 실적이 증명하는 AI·반도체 중심 강세장 지속 구간
-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이벤트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주가 될 전망
- 금주는 추격보다 눌림목, 주도주 압축 전략이 유효한 시장 구간
- 따라서 AI 인프라 수혜주 중심 선별 투자가 필요한 핵심 구간

반도체 대형주가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인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 선택이
중요

금주는 실적이 증명하는 AI·반도체 중심 강세장 지속 구간

이번 주 한국 증시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실적 개선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국면이다. 주간 KOSPI 밴드는 8,100~8,800 포인트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시험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AI 수요 증가, 하이퍼스케일러 CAPEX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가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이며,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적 증가가 주가를 견인하는 전형적인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 매물 소화 과정과 수급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어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AI 투자 확대와 글로벌 이벤트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주가 될 전망

금주 시장의 핵심 이슈는 AI 투자 사이클 지속 여부와 글로벌 기술 이벤트이다. 대만 컴퓨텍스 2026, 엔비디아 GTC 타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미국 ISM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미국 고용지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등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특히 AI 서버, GPU, 메모리, 기판, 테스트 소켓 등 AI 밸류체인 전반의 투자 확대 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기지표는 금리와 달러 방향을 결정하며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이 집중된 만큼 개인투자자 매수 증가와 단기 과열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실적과 수급을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주는 추격보다 눌림목, 주도주 압축 전략이 유효한 시장 구간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분할매수가 핵심

투자 전략은 추격매수보다 눌림목 분할매수가 핵심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코어로 유지하되, 반도체가 쉬어갈 때 AI 부품·소부장·전력기기·IT 하드웨어로 순환매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은 지수 변동성보다 실적과 이익 향상이 확인되는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는 국면이며, AI 인프라 병목 해소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심의 선별 투자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AI 인프라 수혜주 중심 선별 투자가 필요한 핵심 구간

AI 인프라 중심
수혜주 선별 매수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IT 소부장, AI 전력 인프라, IT 하드웨어, 증권·금융, 조선·방산이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기(009150), LG이노텍(011070), 테스(095610), 티엘비(356860), 심택(222800), LS ELECTRIC(010120), 삼성증권(016360),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이다. 이들 종목은 AI 메모리, 서버 부품, 기판, 테스트 장비, 전력 설비, 금융 수혜, 조선 서비스 등 실적 개선 논리가 명확한 기업들이다.

[한장으로 읽는 금주 투자 전략 요약]



[금주 주요 5 가지 이벤트 및 상승, 하락, 변수 요인]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재구성

[투자 유망 섹터 및 주요 관심 10종목]



[금주 주요 미국,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

제조업 회복세
서비스업 둔화
고용 냉각
임금 반등 확인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는 **제조업 회복, 서비스 둔화, 고용 냉각, 임금 반등**을 함께 점검하는 구간이다. 제조업 PMI 55.3, ISM 제조업 53.3 은 제조업 확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산업재·소재 등 경기민감 업종에는 우호적이다. 반면 서비스 PMI 50.9 는 서비스 수요가 강한 회복보다 저속 확장에 머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은 ADP 고용은 116K 로 소폭 개선이 예상되지만, 비농업고용 95K 는 채용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업률 4.3%와 신규 실업수당청구 211K 는 해고 급증이 아닌 연착륙형 노동시장 흐름을 시사한다. 다만 평균임금 0.3% 반등은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를 늦춰 연준의 조기 인하 기대를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주 데이터는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을 지지하지만, 임금과 유가 변수가 남아 있어 금리 하락 기대는 제한될 전망이다. 주식은 지수보다 업종 선별이 중요하며, 채권은 중단기물 중심 대응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구간으로 판단한다.

[그림 1]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6/1~6/5 주간 주요 경제지표 요약 및 전망

핵심 키워드 : 제조업 회복 · 고용 둔화 · 임금 반등 · 연준 관망 · 에너지 변수

1 주간 종합 요약
<p>“제조업 회복은 긍정적, 서비스는 완만, 고용은 둔화 속 안정 임금과 유가가 물가·금리 부담을 키워 연준의 조기 인하 기대는 제한적”</p> <div> <div> <p>제조업 회복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I 55.3, ISM 53.3 확장 국면 유지 전망 5월 제조업 4년 만에 최고 수준 (Reuters) </div> <div> <p>서비스업 완만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PMI 50.9, ISM 비제조업 53.8 50선 초반은 저속 확장 신호로 해석 가능 </div> <div> <p>고용은 둔화 속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P 116K ↑, 비농업고용 95K ↓ 실업률 4.3% 유지 전망 신규 실업수당청구 211K ↓ (해고는 낮은 수준 유지) </div> <div> <p>임금·물가 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임금 0.3% ↑ 원유재고 -3.327M 서비스 물가 하방 속도 둔화 가능성 </div> </div> <div> <p>핵심 한 줄 경기침체보다 ‘연착륙’ 시나리오가 우세하나, 임금·유가·물가가 금리 하락을 제한할 전망</p> </div>

3 핵심 해석 및 시사점
<div> <p>제조업이 경기 하단을 지지</p> <p>PMI·ISM 제조업이 모두 확장권을 유지하며 미국 경기의 침체 우려는 낮아질 전망이다.</p> </div> <div> <p>고용은 둔화되지만 붕괴되지는 않을 전망</p> <p>신규 실업수당청구가 낮고 실업률이 4.3%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비농업고용 95K는 채용 둔화 신호로 해석될 전망이다.</p> </div> <div> <p>연준의 조기 완화 기대는 제한적일 전망</p> <p>제조업 회복, 낮은 실업수당, 임금 0.3%, 원유재고 감소가 결합되면 물가·금리 부담이 이어져 국제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제약할 전망이다.</p> </div> <div> <p>참고(최근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uters: 5월 미국 제조업 활동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강화, 기업 재고 축적 확대 Reuters: 주간 실업수당청구 209K로 낮은 수준 유지, 해고는 일부 기술주 제외 낮아 </div>

2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전망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한줄 핵심 코멘트
6/1(월)	파월 의장 연설	-	-	물가와 고용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지가 금리 방향을 좌우할 전망
	제조업 PMI (5월)	55.3	55.3	제조업 확장세가 유지되며 경기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
	ISM 제조업 PMI (5월)	53.3	52.7	제조업 개선은 경기민감 업종에 우호적이나 금리 하락 기대는 제한
6/2(화)	JOLTS (4월)	6.870M	6.866M	구인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노동시장 급랭 우려는 낮을 전망
6/3(수)	ADP 고용 (5월)	116K	109K	민간고용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강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
	서비스 PMI (5월)	50.9	50.9	서비스업은 확장권을 유지하되 성장 강도는 약할 전망
	ISM 비제조업 PMI (5월)	53.8	53.6	서비스 경기는 침체보다 완만한 확장에 가까울 전망
	원유재고	-	-3.327M	재고 감소 시 유가 하방이 제한되고 물가 부담 확대 가능
6/4(목)	신규 실업수당청구	211K	215K	해고 급증 신호는 제한적이며 고용 안정이 이어질 전망
6/5(금)	평균 시간당 임금 (MoM)	0.3%	0.2%	임금 반등은 서비스 물가와 연준 인하 기대에 부담으로 작용
	비농업고용지수 (5월)	95K	115K	채용 둔화가 확인되며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
	실업률 (5월)	4.3%	4.3%	실업률 안정은 경기 급랭보다 연착륙 가능성을 지지할 전망

4 시장 영향 및 투자 전략
<div> <p>채권시장</p> <p>고용 둔화는 금리 하락 요인이지만, 제조업 확장·임금 반등·유가 상승은 금리 하락 제한 → 중단기물 중심의 보수적 듀레이션 관리가 적절</p> </div> <div> <p>주식시장</p> <p>지수보다 업종 차별화가 중요 산업재·소재·반도체 장비 등 경기민감 업종에 우호적 → 퀄리티 대형주, 가격전가력 높은 업종, 제조업 회복 수혜주 중심 선별 전략</p> </div> <div> <p>환율(달러)</p> <p>고용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임금이 유지될 경우 인하 기대 약화 → 달러 강세 유지될 가능성 높음</p> </div> <div> <p>원자재(유가/금)</p> <p>유가: 재고 감소 시 단기적으로 하방 제한 금: 지정학 리스크에는 우호적이나, 실질금리·달러 상승 시 변동성 확대 가능 → 유가 단기 강세 가능성, 금은 변동성 유의하며 분할 접근</p> </div>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AI 인프라, 사이버보안
기업 IT 투자
미국 소비 강도 점검

이번 주 실적 발표의 핵심은 AI 인프라, 사이버보안, 기업 IT 투자, 미국 소비 강도를 동시에 점검하는 데 있다.

브로드컴(AVGO)은 AI ASIC·네트워크 장비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성을 보여줄 핵심 기업이며, 클라우드스트라이크(CRWD)와 팔로알토네트웍스(PANW)는 보안 지출 확대와 ARR 성장세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AI 서버와 기업용 데이터센터 투자 흐름을 보여주며, 울타뷰티(ULTA)와 룰루레몬(LULU)은 미국 소비 체력과 프리미엄 소비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AI 투자 확대가 실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구간이다.

[그림 2]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등



자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2026.5. 기준) ※ 모든 기업은 실적 발표 전 예상 기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ChatGPT 5.5 재구성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